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모형개발*

- 배우자 학대를 중심으로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rogram for coping with spouse abuse*

수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최규련
한국인간발달연구소
소장 유은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홍숙자
전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정혜정

Dept. of Home Management, Suwon Univ.

Associate Professor : Choi, Kyu Reon

Korean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President : Yoo, Eun Hee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 Edu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 Hong, Sook Ja

Dept. of Home Management, Chonbuk National Univ.

Full-time Lecturer : Chung, Hyeje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V.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절차 | 참고문헌 |
| IV. 프로그램 개발 | |

<Abstract>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 for coping with physical, emotional, and verbal abuse between spouses. Results of empirical study of spouse abuse provided for the basis of designing this program. Consisting of 12 sessions (4 sessions of counseling and 8 sessions of education), the program

* 본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was delivered to 10 marital couples in an area of Kyunggi-do provi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evaluated through one-group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test design. Semi-structured interview technique was also employ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Results of paired t-test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veral variabl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period, and this effectiveness remained until follow-up period. In particular, the degrees of verbal abuse of husbands, and of physical abuse of both husbands and wive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lso, for both husbands and wives, the levels of self-esteem and of quality of communication were increased, while the degree of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 서론

부부간 폭력은 배우자 사이에 발생하는 구타나 언어적·심리적·성적 학대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내 학대이다. 아내학대의 심각성은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는 바, 종래에는 부부간 폭력이 일종의 부부싸움으로서 아내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며 특정한 부부에게서나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 의하면 결혼기간동안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기혼여성의 거의 과반수에 이른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또한 폭력을 가하는 남편이나 당하는 아내는 특정한 일부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학력이나 직업의 고하에 관계 없이 광범위하며 자녀까지 함께 폭행하여 총체적인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전체의 30.4%나 되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6; 한국여성의 전화, 1995). 특히 IMF체제 하에서 가정폭력은 실직자 가정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국민일보, 1998년 8월 29일; 한국가정관리학회 외 편, 1998)

배우자 학대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과 사회·정서적 부적응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력에 노출시킴으로써 폭력을 학습하게 하고 그 결과 폭력이 세대간 전수되는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깨짐으로써 가정내 범죄와 가정파괴가 일어나게 되며 사회의 건강과 안정이 방해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배우자 학대는 더 이상 가정내의 문제로 덮여들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고, 오

랜기간 여러 단체의 노력으로 지난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특별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1997. 12. 31)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법 집행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의 인식부족과 전통적인 가족주의 등으로 인하여 아직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한국일보, 1998년 10월 28일). 더욱이 일선 상담기관에서도 폭력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미비와 전문가의 부족으로 가정폭력 문제를 개입할 준비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법의 홍보와 일선기관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폭력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부간 폭력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여성학자와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폭력을 가부장적 사회제도의 산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런 여성학적 관점에서 나온 가정폭력 중재 프로그램은 남녀평등 사상의 고취와 남편의 억압적 행동을 제한하는 정책적 수준에 초점을 두고, 부부들의 폭력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행동 수정적 치료 및 교육내용은 부족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남편에 대한 치료 및 교육대책보다는 아내를 남편으로부터 격리시키는데 초점을 두며 폭력이 조절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이 폭력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사결과는 폭력만 없어진다면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가정의 해체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한국여성의 전화,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비록 폭력의 책임은 폭력

가해자에게 있지만 폭력의 발생은 부부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폭력 남편과 피해자 아내 모두의 상호작용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부부폭력이 초기에는 경미한 폭력행동을 하다가 시간이 경과되면 점차 심한 폭력행동으로 발전한다는 보고들은 폭력 수준에 따라 가정폭력의 대처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폭력 수준이 경미한 부부들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분리 자체 보다는 이들 가족에 남아있는 긍정적 자원들을 확장시키고 역기능적인 가족의 요소들은 변화시켜 가족의 기능 향상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두 번째 관점은 가족학과 가족상담분야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폭력은 상황적이고 역기능적 부부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시각이다. 즉 분노와 스트레스 조절, 갈등해결 방법, 의사소통 등 부부간의 대인관계 기술에 문제가 있어서 폭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전문가의 개입으로 기술을 습득시키고 부부간의 긍정적인 면을 증가시켜 관계를 개선시키도록 도움을 주면 폭력의 근절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관점은 사회와 국가가 배우자학대 상황에 있는 부부로 하여금 전문가의 개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법안을 시행한다면 부부간 폭력문제 해결은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방지 관련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상담·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들은 가정체계를 방지하면서 폭력의 제지와 교정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배우자 학대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 프로그램 연구가 부족하다. 그나마 현존하는 상담프로그램은 피해자로서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남편과 부부체계, 가족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의 기능을 중시하는 가족학적 관점과 가정폭력은 남성의 강압적인 여성통제라는 여성학적 관점을 통합하여 폭력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아직은 우리사회

에서 극심한 폭력을 가하는 남성들을 상담이나 교육 상황으로 유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한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대상을 폭력수준이 경미하나 갈등이 높아 폭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부부들로 한정하여,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에는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부폭력이다. 부부폭력은 아내구타, 배우자 폭력, 배우자 학대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다. 그 중 아내구타라는 용어는 매 맞는 아내라는 현상을 잘 지적해주는 점은 있으나 초점을 피해자에게로 돌리고 가해자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부폭력은 성을 구분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더 선호되는 개념이다. 서구에서는 배우자 학대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왜냐하면 폭력 용어자체는 신체적·물리적 폭력을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반해, 배우자 학대 용어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학대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학자인 Straus(1979)는 ① 물건을 던지는 것, ② 밀치는 것, ③ 뺨을 때리는 것, ④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것, ⑤ 몽둥이 같은 것으로 때리거나 때리려고 위협하는 것, ⑥ 마구 두들겨 패는 것, ⑦ 칼 같은 무기로 위협하는 것, ⑧ 칼 같은 흉기를 사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등급의 폭력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앞의 세가지는 경미한 폭력으로, 뒤의 다섯가지는 심각한 폭력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Straus의 가정폭력 개념은 신체적·물리적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가 있다.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부류의 학자들(예, Bograd, 1990; Dobash & Dobash, 1979; Johnson,

1995; Pence & Paymar, 1993; Ylo, 1993)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학대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 행위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학대, 즉 경제적 학대, 언어적 학대, 그리고 강요와 협박, 위협, 비난, 고립 등의 정서적 학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학대는 결국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 행사와 통제 수단으로 여겨지므로,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이 모든 형태의 학대를 고려할 때 폭력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신체적 폭력 이전(또는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발생하는)의 다양한 형태의 학대에 대한 전문가의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의 관점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과 학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부부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간과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부부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고된다(Johnson, 1995). 하나는 표현적 폭력이고 또 하나는 도구적 폭력이다. 표현적 폭력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부적절하게 표출하는 방법으로 폭력이 단기간 발생한다. 이러한 폭력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 의해서도 상호적으로 행해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폭력이 심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전제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도구적 폭력은 심한 폭력이 일 주일에 한 번이상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부장적 테러리즘의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남편에 의해 시작된다. 이런 유형의 폭력은 배우자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그 통제를 과시하려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 등의 다양한 전략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 두가지 형태의 부부폭력을 구분해서 연구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조사결과가 어떤 형태인지 명시적으로 나타나있지 않다.

2. 폭력 남편과 매맞는 아내들의 특성

부부간의 폭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즉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반복되거나 점차 심각해지는 특징을 지닌다. 즉 긴장이 쌓이는 단계→폭력발생 단계→화해 단계로 이어지고 다시 긴장이 쌓이는 단계로 반복되는 주기를 거친다(Walker, 1979). 초기에는 주로 처음 단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사과하지만 폭력이 반복될수록 화해의 단계가 줄거나 없어지고 긴장단계와 폭력 발생 단계만 있게 된다. 그런데 남편의 아내 폭력은 결혼 전부터 그 징조가 보이며 상당수가 결혼 초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한국 여성의 전화, 1995; 허남순, 1993).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특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인 자료보다는 아내를 통한 간접자료가 대부분이다. 김광일(1987)은 폭력의 빈도와 강도, 위협 정도가 증가할수록 폭력남편들은 다음의 여러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첫째로, 과도한 의존성, 낮은 자아존중감, 자신감 부족, 분노통제 능력의 부족, 감정 폭발, 비난적 의사소통, 음주, 도박, 외도 문제, 둘째로, 편집증적 성격(의처증), 폭발적 성격, 반사회적 성격 등의 성격장애, 셋째로 정신분열증, 조울증, 뇌증후군, 뇌매독에 의한 진행성 마비, 편집장애(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정신과 질환 등이다. 이외에도 남편의 폭력 원인으로 가부장적 남성 우월의식과 심리적 지배욕구, 의존심과 자율성에 대한 병적 갈등, 충동조절 능력의 결함 등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압력, 잘못 학습된 결혼관,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 계속되는 사회적 스트레스,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작용한다(김광일, 1987). 또한 남편의 폭력은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 직업유형, 종교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나 폭력가정 출신이 50-70%를 차지하여 성장배경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김지영,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허남순, 1993).

폭력의 피해자인 아내는 신체적인 고통과 증상 외에 자신감과 자존심 손상, 정서적 억압, 정체감 혼돈, 적개심과 분노, 폭력재발에 대한 두려움, 정신둔화, 자율신경 과민, 우울, 알콜 중독, 자해,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위축, 고립감, 무기력감, 자녀에 대

한 폭력과 죄책감 등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김광일, 1990, 1994).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을 당해서 쉼터로 피신한 아내들의 경우 폭력에 대한 대응양식이 더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공미혜, 1997; 신은주, 1995). 즉 가출과 귀가의 악순환적 반복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때 이혼을 마지막 출구로 여기고 도움을 요청하고, 자녀를 버리고 나온 것에 대한 죄책감, 자녀보호와 양육에 대한 부담과 갈등을 느끼며, 친구나 사회관계로부터 소외·고립되고 남편에 대해 병적으로 의존한다. 그리고 특히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여성이나 경제력이 없는 여성이 상황을 더 힘들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아내가 남편의 폭력에 대해 이성적인 대화로 해결하는 대응양식을 사용할 경우 아내의 우울감이 적다는 보고도 있다(정서영, 1995).

아내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60% 정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허남순, 1993). 이는 남편의 거부, '여자에게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여성상과, '나 하나 참지 못해 가정을 깨면 애들이 불쌍해진다'는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걱정, '내가 잘하고 남편 비위를 맞춰 살다 보면 남편도 좋아지겠지'라는 낙관적 생각, 남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혼하는 과정과 이혼 후의 생활능력 부족과 자신감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한국 여성의 전화,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러한 경향들은 배우자 학대 관계의 부부들을 개입하고 도와주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상처의 치유, 성장기 경험탐색을 통한 자신과 배우자 이해하기,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 성역할 교육, 분노조절, 갈등과 스트레스 관리, 부부간의 대화기법, 자기 표현과 공감능력 향상, 관계향상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3. 배우자 학대 관련 프로그램

부부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

의 종속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사회문제로 가시화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서구에서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여성이 신체적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아내구타 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매맞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구타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지지하에 배우자 구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쉼터, 법률서비스, 경제적 보조, 응급전화 서비스(hot-line), 응급실 및 경찰로부터의 의뢰를 통한 위기개입, 구타자에 대한 민사적 보호명령, 구타자 처분 및 구타자 프로그램으로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치료와 자조집단을 위시한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시행된 배우자 학대 프로그램은 배우자를 분리시키고 여성 배우자들로 하여금 쉼터를 이용하게 하면서 개별적인 재화에 편중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학대하는 남성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노력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고 있으며, 폭력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부부치료 모델이 개발되어 실시되었다(예, Dutton, 1996; Edleson, 1996; Eisikovits & Buchbinder, 1996; Shamai, 1996). 이들은 대부분 인지행동적 접근과 가족체계론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배우자 학대 관련 프로그램은 대체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향이다. 즉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복지회관, 그밖에 소수의 종교 단체와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을 세분화하면 피해여성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쉼터,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 등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와 쉼터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배우자 학대에 대한 상담 서비스 및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및 전문적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의 배우자 학대에 관한 상담 서비스는 피해 여성 집단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신은주, 1995; 한인영, 1993; 허남순, 1993).

가해자 남성을 제외시킨 이러한 접근은 많은 피해 여성들이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가능한 깨지 않도록 돕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족원 전체가 폭력 상황을 대처 예방하여 부부와 가족이 건전하게 기능하도록 돕는 면이 결여되어 있다(권진숙, 1996; 최규련, 1996).

지금까지 폭력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고안된 우리나라의 연구는 4편(권진숙, 1996; 김재엽, 1996; 심영희, 1996; 최규련, 1996)이다. 심영희(1996)는 부부폭력의 대책으로서 법적 대책, 경찰대책, 법원대책, 피해자 및 가해자를 위한 상담대책,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피난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평등교육과 의사소통 훈련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학적인 제안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예방과 치료대책 수준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김재엽(1996)은 미국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임상치료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초기에는 남편과 아내를 개별적으로 치료하고 가해자가 일정기간(20회)의 치료를 받은 후에야 마무리단계에서 4회의 부부치료를 제안한다. 이 모델은 학대당하는 아내들을 위한 정서적 치유, 구타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이해, 남편 집단의 스트레스 관리, 자기통제, 평등한 부부관계, 대화법 교육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모델도 실시결과에 대한 제시가 없고 구체적이지 않아 하나의 제안수준에 그치고 있다.

배우자 학대 부부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권진숙(1996)은 폭력과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이해시키고 각자의 행동조절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폭력행동과 언어공격행동, 자존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고 효과까지 측정하였으나 부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개인을 집단상담을 통해 교육하였기 때문에 부부간의 역동성과 실제 부부체계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최규련(1996)은 가족체계적 접근모델에 근거한 부부상담 또는 개별상담을 통하여 폭력이 소멸되고 문제해결능력과 부부관계가 개선된 사례들을 보고하였다. 이 모델은 자기 이해와 수용, 분노와 마음의 상처치유, 폭력상황에 대한 대처, 자신감과 자기표현 능력 강화, 분노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 기술훈련, 친밀감과 유대강화, 가족규칙 확립 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남편과 아내 집단별 교육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사전, 사후의 객관적 검증이 미흡한 면이 있다.

이상의 프로그램들은 배우자 학대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이상의 프로그램들은 폭력관계에 맞는 부부 한쪽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여러 연구(김재엽, 1996; 심영희, 1996; 최규련, 1996)에서 폭력은 부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패턴에서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요구된다. 둘째, 부부폭력에는 도구적 폭력과 표현적 폭력의 형태가 있고, 폭력의 형태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과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나 기존의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점이 구별되지 않은 채 개발 또는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표현적 폭력이나 경미한 폭력 관계에 있는 부부를 주 대상으로 하여 인지행동적 접근과 가족체계론적 접근에 기초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III. 연구 절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학대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해서 기존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과 Miller등(1991)의 대화법 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참가자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

로그램 실시 직후 검사와 추후검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즉 문헌연구→프로그램 개발→참가자 모집→프로그램 실시 및 효과성 검증→추후검사의 과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IV.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의 목표

본 프로그램은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배우자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폭력으로 인한 개인 및 부부관계 손상을 치료하며 폭력의 재발을 막고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배우자 학대로 손상된 남편과 아내의 정신건강과 부부관계 적응력을 회복 시킨다.
- 2)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킨다.
- 3) 부부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시킨다.
- 4) 부부갈등에 대한 대처능력과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습득시킴으로써 배우자 학대 재발을 방지한다.
- 5) 평등하고 기능적인 부부체계를 확립시킨다.

2. 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는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 평가하는 첫 시도인 만큼 참가자 모집에 실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극심한 정도가 아닌 경미한 폭력을 경험한 이들을 위주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남편과 아내별 집단상담 1회, 그리고 부부상담 3회, 전체 집단에 대한 교육 8회 등 총 12회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 남편 아내별 집단상담(폭력경험나누기)

구분	내용
목표	1. 라포형성 2. 폭력 경험 인정하고 나누기
상담내용	억압된 감정을 표출시키고 갈등상황에서 폭력 상황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인지시킨다.
활동및실습	1. 자기소개 2. 폭력발생 단서에 대해 이야기한다. 3. 폭력 발생시 생각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4. 폭력이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준비물	이름표, 부부갈등 상황 및 폭력과정 분석표, 사전검사지

2회: 부부상담(남편의 성장배경 및 폭력의 세대전수 인식)

구분	내용
목표	1. 남편의 원가족내 정서적 관계와 미해결 과제 파악하기 2. 폭력의 세대전수 인식하기
상담내용	남편의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경험과 현재 가족에서 반복되는 갈등해결 형태, 분노표현, 폭력 경험에 대해 이해시킨다.
활동및실습	1. 남편의 genogram작성 2. 남편의 장점 찾기 3. 아내의 느낀점 이야기하기
준비물	genogram작성표

3회: 부부상담(아내의 성장배경 및 미해결의 과제 인식)

구분	내용
목표	1. 아내의 원가족내 정서적 관계와 미해결 과제 파악하기 2. 폭력의 세대전수 인식하기
상담내용	아내의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경험과 현재 가족에서 반복되는 갈등해결 형태, 분노표현, 폭력 경험에 대해 이해시킨다.
활동및실습	1. 부인의 genogram작성 2. 부인의 장점 찾기 3. 남편의 느낀점 이야기하기
준비물	genogram작성표

4회: 부부상담 (이성적인 갈등해결 방법익히기)

구분	내 용
목 표	1. 이성적인 갈등대처 방법의 필요성 인식과 모델 제시하기 2. 부부 관계 개선
상 담 내 용	1. 부부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인지하고 효율적인 갈등해결 방법을 습득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한다. 2. 배우자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킨다.
활동 및 실 습	1. 부부의 역할바꾸기를 빈의자 기법으로 실연 2. 이성적인 갈등 대처 방법 실연 3. 부부관계 향상 방법의 탐색
준비물	빈의자

5회: 교육 (평등한 성역할)

구분	내 용
목 표	1. 성역할 사회화와 남녀의 차이에 대한 지식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 이해하기 2. 성역할 고정관념의 초월과 양성성 개발하기
강 의 내 용	1.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성역할 규범 2. 남자와 여자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3. 남자와 여자의 차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행동에서의 차이 4. 여자와 남자의 콤플렉스 5. 남녀의 조화 : 양성성
활동 및 실 습	1.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이점을 생각해 보고 발표하기 2. 자신의 성역할사회화 경험 나누기 3. 착한 여자 콤플렉스와 사내대장부 콤플렉스 검사 및 자기 평가하기
준비물	콤플렉스 검사지

6회: 교육 (공감능력 및 자존감 향상)

구분	내 용
목 표	배우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 및 자아존중감 향상 시키기
강 의 내 용	1. 배우자의 입장 이해하기(남편과 아내는 왜 다투는가?) 1) 감정상의 남녀차이 2) 개인의 성격차이 2. 자존감 향상(안목의 조정과 재구성) 1) 나의 인생각본 2) 관계 맺는 유형 분석하기
활동 및 실 습	1. 신뢰감 학습하기 1) 집단모임에서 자기노출 연습 2) 격려와 지지 2. 자존감 확립 1) 조정되고 재구성된 안목의 표현(배우자나 집단 상호간 장점 발견하기) 2)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기쁨, 감사, 만족의 언어적 표현)

7회: 교육(분노조절)

구분	내 용
목 표	분노, 좌절,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기
강 의 내 용	1. 억압된 감정의 표현 1) 부정적인 감정의 이해 2) 부정적 감정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재구성
활동 및 실 습	1. 자신의 과거 사건과 그와 관련된 감정을 자각하고 수용하기 2.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기

8회: 교육(대화법; 태도 및 말하기)

구분	내 용
목 표	대화하는 태도와 말하기 기술 습득하기
강 의 내 용	1. 대화하는 태도 2. 말하는 주제 3. 말하기의 5영역 4. 말하기 기술
활동 및 실 습	1. 말하는 주제를 실습지에 적어보고 배우자와 나누기 2. 부부 2쌍이 한조가 되어 말하기 기술을 실습하기
과 제 부 여	말하기 기술(혼자, 배우자와 함께) 연습해 오기
준비물	OHP 투영지, 대화법 교육자료

9회: 교육(대화법; 듣기)

구분	내 용
목 표	배우자를 돌보는 태도와 듣기 기술을 습득하기
강 의 내 용	1. 잘못 듣는 행동 2. 배우자 배려하기 3. 듣기 기술
활동 및 실 습	1. 배우자가 들어주었으면 하는 주제를 골라 배우자와 나누기 2. 부부 2쌍이 한조가 되어 듣기 기술을 실습하기
과제부여	듣기 기술을 배우자와 협조하여 연습해 오기
준비물	OHP 투영지, 대화법 교육자료

10회: 교육(대화법; 감정표현과 수용)

구분	내용
목표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배우자의 감정을 수용하기
강의 내용	1.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 2. 부정적 감정의 표현 3. 상대방의 감정수용
활동 및 실습	1. 기쁨, 만족, 감사, 치하, 인정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기 2. 화내지 않고 들어주기 3.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화실습하기
준비물	시나리오

11회: 교육(갈등해결 유형과 갈등해결 방법)

구분	내용
목표	갈등해결 유형 진단 및 갈등해결 방법 이해하기
강의 내용	1. 갈등해결의 중요성과 자세. 2. 부부갈등의 근원과 종류 3. 갈등해결 유형 및 결과 4. 갈등 해결 1, 2 단계
활동 및 실습	1. 부부 각자가 전형적인 갈등 해결 방법과 그 결과를 적은다음 배우자와 나누고 돌아가며 발표하기 2. 부부 각자가 자신이 당면한 갈등 문제를 적고 배우자와 나누기 3. 갈등 해결 2단계를 부부별로 실습하기
과제 부여	자신의 갈등해결패턴을 적고 자신과 배우자에 미친 결과를 적어보기, 갈등 해결 단계를 배우자와 협조하여 연습하기
준비물	OHP 투영지, 교육자료

12회: 교육(갈등해결 기술)

구분	내용
목표	효율적인 갈등해결 기술 습득하기
강의 내용	1. 갈등해결 단계 : 3~7단계 2. 대화스타일과 갈등해결하기 통합
활동 및 실습	1. 부부 2쌍이 한조가 되어 갈등해결 8단계를 돌아가며 실습하기 2. 부부 각자는 자신의 대화스타일과 갈등 해결하기를 통합하여 점검하고 배우자와 나누기
종료	프로그램 평가서(사후검사) 및 소감나누기
준비물	OHP 투영지, 교육자료, 사후검사지

V.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

1. 프로그램 실시

본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지난 3개월 동안 부부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부부로 하였다. 폭력의 범위는 정서적, 언어적 폭력에서부터 신체적 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기질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심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정신과적 치료나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폭력을 경험한 부부를 위주로 하였다.

참가대상자의 모집은 1997년 8월 1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 7개월간 국내 유명 일간지의 광고 게재와 상담기관, 종교·복지기관 및 주변 탐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모집된 대상자들 중에서 정신질환이나 폭력 사용의 정도 및 방법에 대하여 검색한 후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의 실시는 1998년 3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7주간에 걸쳐 경기도 P시에서 실시되었다. 원래 주 1회씩 총 12주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참가하여 참여동기가 약하고, 생업과 직장사정으로 인한 중도 탈락 가능성이 예상되어서 7주에 걸쳐 총 12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 프로그램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본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는 10쌍의 부부였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다.

남편의 연령은 32-39세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 35.9세였으며, 아내의 평균 연령은 33.8세로서 28-39세의 분포를 보였다. 또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중퇴 3명, 고졸 1명, 중졸 1명의 분포를 보였고, 아내의 교육수준은 대학중퇴가 5명, 고졸 3명, 대졸 2명이었다.

자녀수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1명인 경우가 2쌍이었고, 자녀가 2명인 부부가 5쌍으로 가장 많았고, 세쌍의 부부의 경우 자녀가 3명이었다. 만자녀의 평

〈표 1〉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N=10쌍

변 수	구 분	빈 도(%)
남 편 연 령	32 - 35세	4 (40)
	36 - 39세	6 (60)
	평 균	35.9세
아 내 연 령	28세	1 (10)
	31 - 34세	5 (50)
	35 - 39세	4 (40)
	평 균	33.8세
자녀수	1 명	2 (20)
	2 명	5 (50)
	3 명	3 (30)
	평 균	1.9명
남 편 학 령	중 졸	1 (10)
	고 졸	1 (10)
	대중퇴	3 (30)
	대 졸	5 (50)
아 내 학 령	고 졸	3 (30)
	대중퇴	5 (50)
	대 졸	2 (20)
막내자녀 연 령	5 세	2(20)
	6 세	2(20)
	7 세	2(20)
	8 세	1(10)
	10 세	1(10)
	평 균	6.75세
막내자녀 연 령	3 세	4(40)
	4 세	1(10)
	5 세	1(10)
	6 세	1(10)
	7 세	1(10)
	평 균	4.25세
남 편 직 업	자영업	5(50)
	회사원	3(30)
	기술자	2(20)
월평균 소득	150-200만원	5 (55.6)
	200만원이상	4 (44.4)
	평 균	224만원

균연령은 6.75세였고 막내자녀의 평균연령은 4.25세였다. 남편의 직업은 자영업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3명, 기술자 2명의 순이었고, 아내는 모두 전업주부였다. 참가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224만원으로서 도시가계 근로자 소득의 평균보다 높은 집단이

었다. 부부들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 내용별에서는 남편은 부부간의 성격차이와 자녀지도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부인은 부부간의 성격차이, 시가와 의 문제, 남편의 나쁜 습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참가 전 3개월 동안 폭력사용을 조사한 결과 남편, 아내 집단에서 대부분 언어적 폭력이 있었고, 남편들 대부분은 던지거나 부수는 일, 아내를 밀치는 일 등이 있었다. 뺨을 때리는 일이나, 발과 주먹, 물건 등으로 때리는 일, 마구 두드리는 일은 각각 30%로 적었고 위험한 도구로 위협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일은 10%였다. 이중 뺨을 때리는 일은 최근에는 없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의 경우 지금까지의 결혼생활 동안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평가방법

본 프로그램의 효과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양적 분석은 부부간의 갈등 해결방법, 자존감과 우울감, 의사소통 기술을 측정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사전, 사후 및 추후 검사를 실시하고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사전검사는 프로그램 실시전 접수단계에서 실시하였고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은 프로그램 종료시와 추후 검사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서술적으로 응답한 내용을 평가하였다. 추후검사는 프로그램 실시 종료 5개월후 집단 면접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양적 평가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갈등 해결방법 및 폭력 사용 정도

부부간의 갈등 해결방법과 폭력 사용의 강도, 빈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의 척도(1979)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성적 대처 3문항, 외부도움 요청 2문항, 감정적 대응 및 회피 4문항, 언어적 폭력 3문항, 물리적 폭력 9문항 등 5개 하위영역의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마다 1점(전혀 없다)부터 5점(거의 매일 이상)까지의 응답범주를 가지는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해당방법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5개 영역 척도의 Cronbach's α 값에 의한 신뢰도는 남편의 경우 .57에서 .90까지, 아내의 경우 .49에서 .80까지이다¹⁾.

2) 자존감과 우울감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79)의 self-esteem 척도를 사용하고,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Ulbrich(1988)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척도는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 형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과 우울감이 높다. Cronbach's α 값에 의한 자존감 척도의 신뢰도는 남편의 경우 .80, 아내의 경우 .79이고,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는 남편 .89, 아내 $\alpha = .82$ 이다.

3) 의사소통 기술

Miller등(1991)이 개발한 「Talking and Listening Together」의 사전·사후 검사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현재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는 빈도를 '거의 안함'에서 '자주함'에 이르는 6점 리커트형으로 답하게 한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화 방법이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값에 의한 척도의 신뢰도는 남편의 경우 .83, 아내들의 경우 .66이다.

4.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

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양적 분석결과는 표 2에 보는 바와 같다.

첫째, 갈등해결 방법에 있어서 이성적 대처, 언어적 폭력, 신체·물리적 폭력이 사전과 사후검사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추후 검사 기간까지 지속되었다. 즉 프로그램 참가후 갈등 상황에 더 이성적으로 대처하게 되었고, 언어적 폭력과 신체, 물리적 폭력이 감소되었다. 특히 신체·물리적 폭력 정도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유의

미한 감소를 보였다. 그리고 언어적 폭력 정도는 남편집단에서, 이성적 대처 정도는 아내 집단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외부도움 요청 방법과 감정적 대응 및 회피 방법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갈등해결 방법에 있어 부부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전검사서 아내집단이 남편집단보다 감정적 대응 및 회피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프로그램 참가후 유의하게 줄었다. 한편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물리적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프로그램 참가 후에 남편들의 변화정도가 더 커서 폭력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 결과만으로도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밝혀졌다고 하겠다.

둘째, 자존감과 우울감에 있어서 프로그램 참가 전보다 후에 남편과 아내의 자존감이 향상되었으나 이러한 변화가 추후검사까지 지속되지는 않았다. 반면 우울감 수준은 남편 아내 모두 교육 후에 감소되었는데 특히 아내의 경우 추후 검사까지 우울감의 감소를 보였다.

셋째, 대화법 교육에서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부부들이 대화하는 기술이 부족하였으나 프로그램 참가후 대화하는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특히 아내집단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보였고 5개월 후 추후 검사까지 변화가 지속되었다. 남편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참가 전에 비해 프로그램 참가 직후에 대화기술 사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추후검사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여 프로그램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양적 결과외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질적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법 교육을 통하여 부부들이 현재 대화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바람직한 방법을 알아서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사후검사에서는 기술습득 직후이고 연습시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기술을 현저하

1) 문항 수가 적은 하위척도에서 신뢰도가 낮으며 이는 소수의 표집 대상에서 오는 제한점으로 사료됨.

〈표 2〉 사전, 사후, 추후 검사의 분석 결과

변 수	구 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Paired-t value			
		M(SD)	M(SD)	M(SD)	사전-사후	사전-추후	사후-추후	
갈등 해결 방법	이성적 대 처	남 편	10.11(2.37)	11.00(2.0)	11.00(1.93)	-1.65	-1.34	1.25
		아 내	9.50(2.17)	12.30(1.25)	10.13(3.14)	-3.95**	-4.02**	.83
		Paired-t	.78	-1.54	.45			
	외부도움 요 청	남 편	4.00(2.31)	4.30(2.31)	4.33(1.66)	-.56	-.94	1.49
		아 내	4.10(1.91)	4.70(1.95)	3.89(.89)	-1.11	.44	1.07
		Paired-t	-.11	-.49	.38			
	감정적 대응 및 회 피	남 편	5.50(2.17)	5.50(2.79)	4.60(.55)	.00	1.09	-.53
		아 내	9.00(3.92)	6.70(3.54)	5.89(2.75)	1.63	.12	1.65
		Paired-t	-2.32*	-1.24	-.74			
	언어적 폭 력	남 편	8.10(2.28)	4.40(1.27)	4.20(.84)	5.17***	3.35*	-.41
		아 내	6.30(1.70)	5.20(1.40)	4.67(1.41)	1.72	.43	1.17
		Paired-t	1.78†	-1.24	-.59			
	신체· 물리적 폭 력	남 편	12.70(3.97)	9.20(.42)	9.00(.00)	2.82*	2.33†	1.00
		아 내	10.00(1.23)	9.00(.00)	11.33(5.24)	2.45*	-.86	.36
		Paired-t	2.13†	1.50	-1.00			
의사소통 기술	남 편	99.40(14.4)	106.0 (11.4)	110.8 (17.4)	-1.39	-2.28†	-.44	
	아 내	92.60(10.0)	104.8 (24.6)	107.3 (11.6)	-1.97†	-5.52**	.22	
	Paired-t	1.30	.19	.25				
자 존 감	남 편	33.67(4.63)	37.11(2.71)	32.11(6.37)	-2.84*	.57	2.18†	
	아 내	30.89(5.28)	33.56(6.02)	31.86(4.67)	-2.24*	-.72	-.12	
	Paired-t	1.65	1.81	.35				
우 울 감	남 편	22.50(6.59)	18.70(4.99)	21.00(2.83)	3.58**	-1.19	-1.56	
	아 내	30.60(6.13)	23.10(8.23)	24.00(6.44)	4.57**	5.46**	-.81	
	Paired-t	-2.95*	-1.62	-1.04				

†p<.10 *p<.05 **p<.01 ***p<.001

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추후 모임에서는 대부분의 남편들이 대화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적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고, 참가자들의 진술²⁾에서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성역할 교육과 공감능력 및 자존감 향상 교육, 분노조절 교육, 갈등해결 교육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 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의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고 갈등이 감소되었으며, 화를 폭발시키는 일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을 받은 이후 특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되고 아내의 감정과 입장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져서 결혼생활에 더 협조적으

- 2) “내용이 깊었고 새로웠다. 가능한 일찍 중학교 시기 정도에 대화법 교육을 받았어야 할 것 같다.” “대화법에서 말하기 듣기 기술이 어렵다. 30년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자각의 5영역을 모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다.” “교육 전에 대화기술이 부족했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주 잊어버리고 한참 후 대화법을 상기하게 된다.” “교육 후 지금까지 대화 기술을 사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아내와 같이 배웠기 때문에 서로 배운 것을 상기시켜주고 지적해 주니까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남편이 교육이후에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상처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아서 좋다.” “아내가 교육 이후에 나한테나 애들에게 말하는 방법이 많이 부드러워져서 나도 교육받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로 된 것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교육전에 비해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이는 참가자들의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³⁾.

셋째, 집단상담과 부부상담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과 이성적인 갈등대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폭력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다⁴⁾.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상담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다른 참가자에 비해 폭력이 심했던 1쌍의 부부의 경우는 부부상담을 더 요청하여 추후검사 전까지 수차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폭력예방과 관계회복에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종료 5개월 후 사후검사의 평가 내용에 기초하여, 참가자들을 직접 집단 면접을 통하여 질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교육 및 상담효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고, 사후검사의 응답내용을 대부분 재확인할 수가 있었다. 즉 부부가 상대방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고 상호 협조적인 태도와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게되어, 프로그램 종료 때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하거나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배우자 학대를 경험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폭력 재발방지와 건강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1회의 집단상담과 3회의 부부상담, 그리고 성역할, 공감능력 및 자존감 향상, 분노조절, 대화법 및 갈등해결에 관한 8회의 교육 등 총 12회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경기도 P시에 거주하는 부부 10쌍을 대상으로 7주간에 걸쳐 총 12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다시 5개월 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참가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편 35.9세, 아내 33.8세이고 평균 자녀수는 1.9명이다.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양적, 질적으로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신체·물리적 폭력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현저하게 줄었다. 그리고 남편들은 언어적 폭력이 상당히 감소되었고, 아내들은 갈등상황에서 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또한 남편과 아내 모두 자존감이 향상된 반면 우울감은 감소되었다.

프로그램 내용 별로 효과성을 살펴보면 집단상담과 부부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되었고 부부폭력 발생에 자기 자신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관계패턴을 바꾸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갖고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

대화법 교육은 부부들의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켰고 특히 아내들의 경우 그러하였다. 사후검사 결과 남편들은 태도에서는 변화를 보였으나 실제적인 행동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후검사에서는 남편들 역시 의사소통기술의 향상

- 3) "전에는 아내의 말에 회피하고 내 일에만 신경썼었다. 아내의 감정에 큰 신경 안 쓰고 아내 말에 무 자르듯 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 아내에게 마음을 열게 되니까 아내의 좋은 점이 보이게 되고 이해심도 많아져서 갈등도 줄었다.", "전에는 하루에도 몇번씩 큰소리가 났으나 교육 후 아내나 아이들에게 큰소리내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하니까 싸울 일이 적어졌다.", "남편에게서 화나는 말이나 표정이 없어져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고 여유도 생겼다. 나도 에들에게 화를 내지 않게 되니까 집안분위기가 편안해졌다."
- 4) "부부상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내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다른 사람의 관점도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졌다.",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부부상담 받고 나서 남편의 밑바닥부터 이해하게 되었고 싸울 일이 적어졌다.", "부부상담에서 전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하게 되어서 속이 후련해졌고 아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가계도가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었다.", "부부 상담을 통해 나 자신의 성격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 긍정적 생각을 하고 내 몫의 노력을 하게되었다.", "집단상담에서 도움이 컸다. 자기를 솔직히 드러내는 작업에서 가장 효과가 컸다. 나만이 가진 갈등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갖고 있다는게 도움이 되었다. 집단상담 후의 느낌이 좋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좋았다."

을 보였다. 이는 사후검사에서는 남편의 직장생활로 인하여 연습시간이 더 부족하여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5개월 기간의 연습시간이 있었고 또 교육후 아내의 대화기술이 향상된 결과 그 영향을 받은 것에서 비롯된다.

갈등해결 교육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이성적 대처를 하게 되었고 폭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성역할 교육을 통해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부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공감능력 향상 교육과 분노조절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배우자간의 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본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첫째, 폭력을 경험하는 부부들의 치료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폭력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 실시 횟수를 가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부간의 갈등심화와 배우자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종교기관, 지역문화센터, 직장연수, 사회·평생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를 중재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가정폭력 특례법이 시행되고 다양한 폭력문제에 개입해야 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후속연구에서 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나 심한 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폭력 치료프로그램을 후속적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공미혜(1997).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 아내구타. 가족학논집, 9집, pp.49~80.
- 2) 국민일보(1998). 8월 29일자 사회면기사
- 3) 권진숙(1996). 배우자 학대 부부집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4) 김광일(1987).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 5) _____(1990). 정신건강연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구소, 9집, pp. 174-183.

- 6) _____(1994).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편. 여성연구. 봄호.
- 7) 김재엽(1996). 한국인의 가족구조 유형과 가정폭력과 관계: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40주년 심포지움 논문집.
- 8) 김지영(1995). 학대받는 아내를 위한 사회복지관력기관의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사업 석사학위논문.
- 9) 신은주(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10) 심영희(1996). 가부장적 테러리즘의 발생유지기제와 사회적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40주년기념 심포지움 논문집.
- 11) 정서영(1995). 부부간의 심리적·신체적 학대, 대처양식과 개인의 적응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최규련(1996). 한국에서의 부부간 폭력에 대한 대책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pp.103-130.
- 13) 한국가정관리학회·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편(1998). 실직자가정의 위기극복 전략 및 가정복지 지원체계.
- 14) 한국가정법률상담소(1996).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 15) 한국여성개발원(1993). 한국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16) 한국여성의 전화(1995). 여성상담사례집.
- 17) 한국일보(1998). 1998년 10월 28일자 사회면 기사
- 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19) 한인영(1993). 아내학대문제와 임상사회사업가의 개입에 대한 소고-한국사회복지의 전달체계와 임상사회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지, 9집, p.270.
- 20) 허남순(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 편 비교사회복지 2집. pp.277-320.
- 21) Bograd, M.(1990).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In K.Yllo & M. Bograd(Eds.).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Newbury Park, CA: Sage.
 - 22) Dobash R. F., & Dobash, R. P.(1979). *Violence against wives*, N. Y.: Free Press.
 - 23) Dutton, M. A.(1996). Battered women's strategic response to violence: The role of context. In J. L. Edleson & Z. C. Eisikovits(Eds.). *Future interventions with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Newbury Park, CA: Sage.
 - 24) Edleson, J. L., & Eisikovits, Z. C.(1996). *Future interventions with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Newbury Park, CA: Sage.
 - 25) Eisikovits, Z. C., & Buchbinder, E.(1996) Toward a phenomenological intervention with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In J. L. Edleson & Z. C. Eisikovits(Eds.). *Future interventions with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Newbury Park, CA: Sage.
 - 26) Johnson, M. P.(1995). Patriarchal terrorism and common couple violence : Two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May), 283-294.
 - 27) Miller, S., Miller, P., Nunnally, E. W., & Wackman, D. B.(1991). *Couple communication 1: Talking and Listening Togethe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rograms, Inc. 채규만·최규련·송정아·홍숙자 공역(1996). 부부대화법1: 부부가 함께 말하기와 듣기.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28) Miller, S., Miller, P., Nunnally, E. W., & Wackman, D. B.(1992). *Couple communication. Instructor Manu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rograms, Inc. 채규만·최규련 공역(1996) 부부대화법 지도자 지침서.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29) Pence, E., & Paymar, M.(1993). *Education groups for men who batter: The Duluth model*. N.Y.: Springer.
 - 30) Shama, M.(1996). Couple therapy with battered women and abusive men: Does it have a future? In J. L. Edleson & Z. C. Eisikovits(Eds.), *Future interventions with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Newbury Park, CA: Sage.
 - 31) Straus, M. A.(1979). Measuring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1), 75-88.
 - 32) Walker, R.(1979). *The battered woman*, N. Y. Harper & Row.
 - 33) Yllo, K. A.(1993). Through a feminist lens: Gender, power, violence. In R. J. Gelles & K. R. Loseke(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